

# 검찰, 박근혜 1심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장범죄 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30년은 '공범' 최순실(62)씨보다 5년 높은 구형당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구형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약 10개월, 5월23일 첫 재판 9개월 만이다.

이날 직접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비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삶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최초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이뤄졌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결심공판마저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초 딸 정유라(22)씨 딸 구임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9억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초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2013년 9월~2016년 9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당시 아편을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혐의 등(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모두 18개 혐의가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0

### '징역 25년 구형' 최순실보다 5년 높아 기소 10개월, 첫 재판 9개월 만에 구형 벌금 1185억원도 구형...최순실과 동일 검찰 "국민에게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

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 만원을 선고 받았다.

뉴스스



**봄기운이 반기는 동박새** 27일 제주 서도두 동인 주택가에 동박새 한 마리가 청매화 나뭇가지 사이를 오가며 따뜻한 봄날씨를 즐기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따스한 날씨를 보였다.

## 금호타이어 협상 먹구름...노조 "해외매각 철회 없인 협상 불가"

금호타이어 노사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골든타이도 속절없이 흘러 보내고 있다.

2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 최종 협상 교섭이 노조의 반발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오늘 노조와 마지막 본교섭을 통해 자구안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었지만 노조가 해외매각 철회 없인 협상 불가를 선언하면서 교섭상대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상용차, 한국GM 사태 등을 비추볼 때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 외국계 회사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자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노조는 "지난 26일 산업은행이(중국 더블스타)해외매각 시 노조측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이는 '해외매각을 가

속화 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채권단의 해외매각 철회 공식인정 발표 없이는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채권단이 해외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국내 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고분분담을 더 감수할 수도 있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채권단은 노사간 합의가 될 경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을 찾되 외국계 회사로 금호타이어를 매각할 경우 노조와 별도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어제 오후까지도 현장에서는 노조가 오늘 중으로 이 같은 수정 자구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점쳐졌지만 '해외매각 철회' 관철이라는 협상 카드를 내밀고 배수진을 치면서 채권단의 양보 없이는 협약 체결을 어렵게 전망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기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역시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다.

## 러시아 호텔 화재로 어린이 3명 등 6명 사망

러시아 서부 페름 지역의 한 호텔에서 27일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조사위원회가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화재로 여성 1명과 남성 2명 등 성인 3명과 어린이 3명 등 모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죄 용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수집된 조사 정보만으로는 폭력이 개입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파푸아뉴기니 7.5 강진·여진 30명 사망

파푸아뉴기니에서 중부 고원지대에서 발생한 강진과 여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현지 매체 '포스트 큐리어'는 지진으로 남하일랜드주의 주도 밴디에서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근 쿠투부아와 보사베에서도 최소 1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또 이밖에 약 300명이 부상을 입었고, 산사태, 싱크홀 등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언론은 이번 지진으로 수천개 건물이 파괴됐고, 현지 코모공항도 크게 파괴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다른 현지 매체는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앞서 26일 오전 3시45분(현지시간)께 파푸아뉴기니 하일랜드주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한 뒤 규모 6.0과 6.3의 여진이 2차례 일어났다.

## 중국 장쑤성서 전염성 강한 A형 독감 유행

중국 장쑤성에서 유행을 아시아 지역을 휩쓴 B형 아미가타 독감 대신 전염성이 강한 A형 H1N1이 퍼지고 있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전날 관내에서 A형 H1N1 독감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통제센터는 근래 장쑤성에서 창궐하는 독감을 감시 측정한 결과 2018년 1월 3주차부터 2017~18년 겨울철 주류 독감이 B형 아미가타에서 A형 H1N1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장쑤성 감염병예방국은 1월 외부에서 들어온 독감에 걸린 유사 증상을 보인 환자가 443명에 달했고 정밀검사 끝에 1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중 6명은 A형 H1N1 독감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형 H1N1 독감은 급성호흡기 전염병으로 바이러스가 신종 변이형으로 인체 간 전파된다.

A형 H1N1 독감은 기존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와는 달리 돼지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인플루엔자의 3가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장쑤성 질병센터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신부 경우 A형 H1N1 독감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일 A형 H1N1 독감 증세가 있으면 즉각 병원을 찾아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고위험군은 이미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질병센터는 강조했다.

## 나이지리아 전역에 라사열 창궐, 43명 숨져

나이지리아 전국에서 사이프리카 열대 우림지대 풍토병인 바이러스성 급성출혈열 라사열(Lassa fever)이 발생해 17개 주에서 이미 43명이 숨졌다고 나이지리아 방역당국이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달 동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환자 199명 가운데에서 나온 사망자 수이다.

나이지리아 질병통제 센터가 공식 발표한 이 결과는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 중 무려 23.9%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1969년 나이지리아의 라사마에서 발생되어 미국·영국·독일로 퍼진 라사열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이 나라에 검사를 수행할 연구소가 단 세군데 밖에 없다는 게 문제이다.

나이지리아 보건장관 아이작 아데올레는 국립 의학연구소를 비롯한 다른 연구소들이 현재 라사열 바이러스의 변화하는 형질에 대한 역학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사열은 원래 건조기에만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연중 발생해서 이 병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건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